



제이에이치케이 '아빠손잡금장치'

“홀로 사는 여성들도 안심하고 창문 여세요”

교실 창문에 걸터앉으면 바깥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반쯤 열린 창문이 밀리며 기댄 몸을 지지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내 스타트업 제이에이치케이(JHK)가 지난 4월 내놓은 '아빠손잡금장치'는 반쯤 열어둔 창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창틀에 설치하면 열린 창문을 고정할 수 있다. 강재와 JHK 대표는 “학창 시절 구상한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선보인 것”이라며 “가정 내 어린이 추락을 막는 것은 물론 여성이 혼자 사는 가구에서도 마음 놓고 창문을 원하는 만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200kg 힘 가해도 안 열려

JHK는 강 대표가 지난해 4월 창업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다. 창업하기 전까지 강 대표는 한 중소기업에서 생산품 외형을 담당하는 하드웨어 개발자였다. 그는 “전직장에서 금형을 오랫동안 제작해 아빠손잡금장치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지난해 입교해 도움을 받았다. 그는 “제품 기획 개선은 물론 어떻게 판로를 개척할 것인지

직접적인 조언을 얻었다”고 말했다. 사관학교의 권유로 지난해에는 제품 출시를 앞두고 국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소비자의 반응을 살피기도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펀딩을 해 목표 금액의 세 배를 모았다. 지난해 6월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선정하는 ‘히트500’ 상품에도 뽑혔다.

잠금장치 창틀에 끼운 뒤 레버를 젖히면 위치 고정 장치 설치된 곳까지만 열린다

어린이 추락사고 등 막고 여성 가구 침입 범죄 예방

중진공 선정 ‘히트500상품’ ‘B2B에도 도전하고 싶어’

아빠손잡금장치는 잠금장치와 방범패키지로 구성했다. 잠금장치는 창틀에 끼워 사용하면 된다. 잠금장치를 창틀에 끼운 뒤 레버를 젖히면 위치가 고정돼 창문이 잠금장치가 설치된 곳까지만 열린다. 열쇠를 뽑아두면 어린이나 외부 침입자가 임의로 열 수 없다.



강재와 제이에이치케이 대표가 창틀 모형을 이용해 아빠손잡금장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우 기자

방법패키지에 포함된 들림방지 판은 창문을 위로 들어올려 창틀에서 떨어질 수 없도록 하는 부품이다. 창문과 창틀 사이에 끼워넣으면 된다. 방범판은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됐다. 잠금장치에 추

방 200kg의 힘을 가해도 열리지 않는다.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1만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다. ◆기업 판매도 모색 강 대표는 “대부분의 침입 범죄는 창문을 통해 발생한다”며 “이 제품으로 여성 1인 가구가 마음 놓고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jkim@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9월의 으뜸중기 제품 △오프리스-웨어러블 체어 △캠스필드코리아-엑상세제 SAFI △제이에이치케이-아빠손잡금장치 △코니맥스-코니맥스 침구청소기 헤드

창문을 열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안기업 에스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 침입범죄 중 48%가 창문을 이용했다. 강 대표는 일반 소비자에게 팔고 있는 제품을 기업 간 거래 제품(B2B)으로도 판매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이다 보니 마케팅 역량이 부족해 소비자가 아빠손잡금장치 같은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이 아쉽다”며 “창도와세시를 제작하는 기업에 제품을 공급해 처음부터 마케팅 창틀을 제조하면 소비자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idol@hankyung.com

드라마·영화도 기술성 평가 技保, 대출 보증 크게 늘린다

올해 3700억원 지원

기술보증기금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규모



주로 기술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 자금을 보충해 온 기술보증기금이 영화·드라마·뮤지컬공연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시나리오, 감독 및 배우의 역량, 마케팅 능력 등을 ‘기술성’으로 평가해 금융회사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다.

25일 기보는 올 연말까지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를 열고 연내 3700억원 규모의 관련 지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를 연 데 이어 지난 8월엔 경기 성남시 판교에 경기센터를 신설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작년(2809억원)보다 약 30% 늘었다. 기보는 드라마 ‘군주: 가문의 주인’(MBC) ‘비밀의 숲’(tvN) 등을 기술평가해 제작비 대출을 지원했다. 2020년까지 관련 지원 규모를 연간 5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보가 문화콘텐츠산업의 유형 가치를 ‘기술’로 평가해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에 나선 것은 문화산업의 잠재 가능성과 높은 경제 파급력 때문이다.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은 매년 성장을 거듭해 2015년 말 기준 매출 100조원, 수출 57억달러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서 3위, 세계에선 7위 수준이다. 반도체 자동차 등 정통 제조업과 비교해 고용 유발계수도 두 배 이상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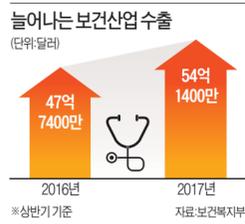
문화콘텐츠제작사는 대부분 매출 10억원 미만, 종업원 10명 미만의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조업과 달리 작품성이나 흥행 가능성 등 무형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 제도권 금융회사의 자금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보는 온라인 게임, 방송 드라마, 극장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모바일 게임, 뮤지컬 공연 등 11개 장르별로 전문 평가 모형을 개발·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김규욱 기보 이사장은 “문화콘텐츠기업의 신용도나 재무 상황이 얼마까지 않고 센터별로 자체 평가해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도록 전국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며 “문화콘텐츠산업은 생산량이나 종사자 등 산업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높은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확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문해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바이오시밀러 덕에 의약품 美수출 급증

상반기 2억2천만불 ... 2배↑ 보건산업 일자리 80만명 넘어



국산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미국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의약품의 미국 수출 규모가 급증했다. 사드(고구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영향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화장품·식품·의약품 수출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3.4% 증가한 54억1400만달러(약 6조1000억원)를 기록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보건산업 분야 16개 상장기업 매출은 같은 기간 3.1% 증가한 15조1000억원이었다. 보건산업 분야 고용은 지난해 말보다 3% 증가한 8만9000명으로, 처음으로 80만 명을 넘어섰다. 의약품 수출을 이끈 것은 바이

오시밀러였다. 올해 상반기 의약품 수출액 16억5000만달러(약 1조9000억원) 중 바이오시밀러 수출액은 24.6%인 4억1000만달러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미국 판매허가를 받으면서 미국 수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산 의약품의 미국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삼성메디슨 등의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수출이 늘면서 의료기기 수출액도 전년보다

11.7% 증가한 14억7000만달러(약 1조7000억원)를 기록했다.

보건산업 분야 수출과 매출이 골고루 증가했지만 화장품·의약품 매출은 줄었다. 23개 상장사의 올해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7% 줄어든 5조7000억원이었다. 복지부는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아모레퍼시픽 등의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캐나다·네덜란드·프랑스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면서 수출 증가세는 이어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방문해 보건산업 분야 성과와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보건산업은 성장 고용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혁신 성장의 핵심 산업”이라며 “정부가 관심을 두고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숨만 쉬고 있어도 폐암 진단한다

“내쉬는 숨 속 유기화합물로 확인 ... 정확도 75%”

전상훈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팀



ETRI가 개발한 전자 코로 분석했다. 이를 인공지능(AI)으로 학습하게 한 뒤 분석했다. 수술 전 폐암 환자와 건강한 성인은 서로 다른 수치를 보였다. 수술 받은 폐암 환자의 수치는 정상인과 비슷했다. 폐암 판별 정확도는 75% 정도였다.

국내 의료진이 날숨 속 유기화합물을 분석해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전상훈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병원장·사진)팀과 이대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팀은 날숨을 활용한 폐암 진단 검사법을 개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폐암 환자는 호흡 관련 단백질 인시토크롬 P450 혼합산화효소가 활성화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분해 속도가 빨라진다. 전 교수팀은 이를 토대로 폐암을 진단하는 바이오마커를 개발했다. 센서가 이를 분석해 알려주는 방식이다.

전 교수팀은 폐암 환자 37명과 정상인 48명의 날숨을 채취한 뒤

폐암은 건강검진에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공인된 선별검사가 없어 진단까지 시간이 걸린다. 사망률이 높은 이유다.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조기 진단율이 높아질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센서앤드액추에이터 최근호에 실렸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수출중소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 가장 어려워”

중기중앙회 305社 조사 “FTA 제대로 활용 못해”

수출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중 절반이 넘는 기업은 ‘원산지의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50.5%)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원자료를 포함한 제품의 품목번호 확인’을 꼽은 응답자는 17.7%였으며 ‘FTA 협정 여부 확인’(6.6%), ‘양허품목 및 양허세율 확인’(6.2%) 순이었다.

정부가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은 59.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최근 2년 내

모두 FTA를 활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수출에 활용한 기업은 58.7%, 수출입 모두에 활용한 기업은 41.3%였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4%는 “FTA 활용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은 ‘원산지의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50.5%)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원자료를 포함한 제품의 품목번호 확인’을 꼽은 응답자는 17.7%였으며 ‘FTA 협정 여부 확인’(6.6%), ‘양허품목 및 양허세율 확인’(6.2%) 순이었다.

정부가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은 59.7%가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최근 2년 내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참가기업모집

2017 홈쇼핑·중소기업상생 박람회

/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의 현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참가업체 모집

대상 국내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규모 250개사 500부스 (예정)

품목 가전·디지털 | 가구·침구 | 생활·식품 | 건강·미용·뷰티
패션·의류·주얼리·잡화 | 유아·교육·출산 | 애완·반려동물
스포츠·레저·여행 | 보험·렌탈서비스

11.15 수 - 11.17 금 KINTEX 1전시장 5홀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국회산업정책위원회/한국경제신문/대한상공회의소
후원(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한국은행/주요 홈쇼핑사

주요 프로그램

01 전시·상담회

- 홈쇼핑·중소기업 제품 및 서비스 전시
- B2B 상담회 등

02 특별행사

- 홈쇼핑·중소기업상생선포식
- 개막식
- 스마트 오픈 스튜디오 등

04 이벤트

- 쇼호스트 경진대회
- K뷰티메이크업쇼
- 경품이벤트 등

03 세미나·설명회

- 홈쇼핑 입점 설명회
- 중경왕홍마케팅세미나
- 역경매 마케팅 세미나
- 4차산업비즈니스 전략강연
- 우수 중소기업 제품 설명회 등

문의
신청

02-785-5801

hshopfair.kr

02-784-5801

info@hshopfair.kr